주루 기여도 6위서 3위로…도루 성공률도 1위

KIA 타이거즈 결산 〈4〉 주루

'103번 시도 84번 안착' 성공률 '81.6%'…주루사 '44개→35개'
주자 득점 비율 31.1% '8위→4위'·김민규, 팀 도루 기여도 1위

올 시즌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주루가 KIA 타이거즈의 공격에 힘을 보탰다. 도루로 득점권을 만들고 상대 수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접전에서는 주자의 움직임이 승부를 가르기도 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탯티즈에 따르면 KIA는 도루를 제외한 주루 기여도에서 리그 3위다. 지난해 6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주자로 나간 뒤 득점에 성공한 비율도 8위에서 4위로 높아졌다. 도루 성공률은 리그 1위다.

지난 5월9일 롯데전은 도루와 추가 진루가 승부를 바꾼 대표적인 경기다.

1-1로 맞선 8회초 박재현이 기습 번트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2루를 훔쳤다. 김선빈의 땅볼 때는 3루까지 내달렸다. 이후 아데를린의 적시타로 결승 득점을 올렸다. KIA는 3-1로 역전승했다.

10월4일 LG전에선 대주자 기용이 역전승으로 이어졌다.

KIA는 3-5로 뒤진 9회초 김태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다. 이어 김민규가 대주자로 투입됐다. 이호연의 동점 적시타 때 김민규는 2루까지 진루했다. 박재현의 희생번트로 3루를 밟았고, 카스트로의 희생플라이 때 결승 득점을 올렸다. KIA는 6-5로 역전승했다.

KIA의 주루 기여도(BR RAA)는 지난해 +0.82에서 올해 +3.92로 높아졌다. 도루를 제외한 주자의 진루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특히 장타 때 진루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2루타 때 1루 주자가 홈까지 진루한 비율은 47.8%로 리그 2위다. 1위 롯데의 48.1%와 불과 0.3%포인트 차이다.

선수별로 김도영이 주루 기여도 +2.09로 팀 내 1위다. 지난해 +1.12보다 높아졌다. 김민규도 +2.03으로 뒤를 잇는다. 박재현의 주루 기여도는 지난해 -0.73에서 올해 +1.85로 개선됐다.

주루 과정에서 아웃되는 경우도 줄었다.

KBO 기록에 따르면 KIA의 주루사는 지난해 44개에서 올해 35개로 9개 감소했다. 견제사는 두 시즌 모두 7개다.

주자로 나간 뒤 득점에 성공한 비율(RS%)도 높아졌다.

지난해 27.8%에서 올해 31.1%로 상승했다. 리그 순위는 8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다만 이 지표에는 후속 타자들의 공격력도 반영된다.


지난 9월29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KT의 경기에서 KIA 박재현이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도루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했다.

KIA는 올해 103차례 도루를 시도해 84개를 성공했다. 시도 횟수는 리그 공동 7위다. 지난해에는 99차례 시도에서 77개를 성공했다. 실패는 22개에서 19개로 줄었다.

성공률은 지난해 77.8%에서 올해 81.6%로 상승했다. 리그 순위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도루 기여도(SB RAA)는 +2.80에서 +4.20으로 높아졌다.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리그 2위다.

지난해 팀 내 최다인 27개의 도루를 기록한 박찬호가 이적했지만 팀 도루는 오히려 증가했다.

박재현이 21개로 팀 내 최다다. 김호령은 17개, 김민규는 15개, 김도영은 11개를 성공했다. 김민규는 도루 기여도 +1.74로 팀 내 1위다.

이들 네 선수의 도루는 64개로 팀 전체 84개의 76.2%다.

적극적인 주루는 안타 하나로도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든다.

올해 KIA는 주루에서 아웃을 줄이며 득점 기회를 넓혔다.

내년에도 이러한 주루 효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홍철 기자

순천시청, 순천만국가정원컵 단체전 우승

김지정 -70kg급 '金'·신채원 -63kg급 '銀'·신지영 +78kg급 '銅'

순천시청 유도팀이 안방에서 열린 제11회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단체전 정상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10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27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전국 97개 팀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개인전에서는 김지정이 -70kg급에서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정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4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정상급 선수 기량을 증명했다.

제17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신채원은 -63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신지영은 +78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각 체급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입증한 김지정과 신채원은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 정식 입촌해 2027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대비한다.


제11회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이윤선(왼쪽부터), 양서우, 신채원, 김지정, 신지영, 김양호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대학부에서도 세한대가 선전을 펼쳤다.

송경현, 조주현, 최성웅, 김동영, 안상민으로 팀을 꾸린 세한대는 대회 남자대학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국민대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최강' 용인대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박희중 기자


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불로초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불로초 농구팀 '아름다운 도전'

3월부터 함께 맞춘 팀워크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준우승

광주 불로초 농구팀의 아름다운 도전이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불로초는 지난 9일 경북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에서 열린 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남자초등부 결승에서 울산 화진초에 22대34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3월 팀을 꾸리면서 학생들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됐다. 학생들은 김혁 지도교사와 함께 기본기를 익히고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춰 왔다.

김 교사는 기술 지도뿐 아니라, 학생들이 농구의 즐거움을 느끼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며 동료를 격려하는 등 스포츠맨십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었다.

팀워크를 다지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나된 선수들은 지난 6월27일 열린 제19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초등부에서 우승(3전 전승)을 차지하며 광주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불로초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부산 연포초에 33-44로 패했으나, 전남 한아름초를 50-6으로 꺾고 첫 승을 거뒀다. 이어 8강에서 대구 국우초를 43-32로 제압한 데 이어 준결승에서는 서울 장평초를 43-37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학생들의 도전에는 학교와 선생님,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도 함께했다. 전국축전에는 송하인 교사가 동행해 학생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했으며, 학부모들도 현장에서 응원으로 힘을 보탰다.

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선수들은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선생님과 함께 트로피 앞에서 소중한 성장의 순간을 기념하며 영원히 잊지 못할 값진 순간을 기록으로 남겼다. /박희중 기자

'창용불패' 임창용, 전국 유소년 선수들과 '진검승부'

오는 17일 무등경기장에서 '임창용을 이겨라' 특별이벤트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 재능 기부…전성기 유니폼 착용, 추억도 선사

한국과 미국, 일본 프로야구를 호령했던 '살아있는 전설' 임창용(51)이 꿈나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오른다.

임창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전국 유소년·청소년 야구 유망주들과 투타 맞대결을 펼치는 '임창용을 이겨라' 특별이벤트에 참가한다.

'창용불패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고메스퀘어 광주상무점'이 후원하는 이번 이벤트는 비시즌 어린 야구선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선수 가운데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타자 10명이 참가해 임창용과 1대1 승부를 펼친다. 특히 임창용은 현역 시절 몸담았던 3개 구단(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야쿠르트 스왈로즈) 유니폼을 차례로 착용하고 마운드에 올라 팬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보상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이벤트는 현역 시절 임창용과 명승부를 펼쳤던 일본 야구 전설 스즈키 이치로가 은퇴 후 매년 일본 고교 야구부를 찾아가 재능기부 지도를 이어가고, 고교 야구 여자 선발팀을 상대로 직접 마운드에 올라 50대의 나이에도 전력투구 진검승부를 펼치며 큰 울림을 준 행보를 연상케 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임창용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후배들이 대선배의 공을 직접 타석에서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고,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KIA, 삼성, 야쿠르트 시절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께도 옛 추억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17일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야구팬과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메시, FIFPRO 베스트11 최다 18회 선정


메시 /AFP=연합뉴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통산 18번째로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남자 월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최다 선정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은 명단에 들지 못했다.

FIFPRO는 1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73개국 1만 9천806명의 남자 프로축구 선수가 참여한 투표를 거쳐 2026 남자 월드 베스트 11 명단을 발표했다.

메시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 라민 야말(바르셀로나)과 함께 공격수 부문에 선정됐다.

지난 8월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 진출을 이끈 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메시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베스트 11에 복귀해 자신의 최다 기록을 18회로 늘렸다. 올해 19세인 야말은 10대 선수로는 최초로 두 번 월드 베스트 11에 뽑히는 기록을 썼다. /연합뉴스